

제148호(2017. 6. 1.)

농산업을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

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1. 농산업 고용 현황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1
2.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우수 사례	5
3. 청년들의 농산업 진출의 가능성과 요구	8
4.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061-820-2284	soosuk@krei.re.kr
내용 문의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음.**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 대비 8.9%)이고, 고용 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 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 당 취업자 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평균(6.4명)의 2배에 이룸.
 - 향후 농산업 분야의 종사자 전망 및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 명 정도가 더 투입될 필요가 있음. 농림 생산 부문 61만 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 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청년 세대(농업계 학생 및 일반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지 않음.**
 - 농업계 학생, 일반계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의 30.4%가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이 있었음.
 - 이들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음.
- **농산업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농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 차원에서 임금 지원과 복지체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함. 필요한 경우 기본 소득제를 농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에게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을 정교화해야 함.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무엇보다 농산업 노동시장과 농업계 학교의 산학연계를 활성화 시켜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 체계를 정비하며,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의 돌파구로서 농산업의 역할 여지가 많음

1. 농산업 고용 현황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 상황은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본(5.2%)의 2배 수준임(일본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1%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함.
- ‘공식실업자’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름(현대경제연구원 2016).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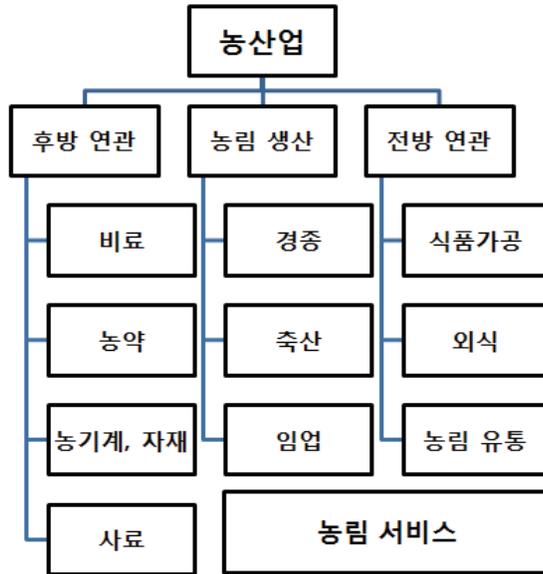
- 농산업 분야는 농림축산물 생산, 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재(종자,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농자재 등), 관련 서비스(농림토목, 연구, 교육, 컨설팅) 산업 및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산업 등을 포함함.
 - 농업생산 분야의 경우 농가(2015년 현재 108만 가구)뿐 아니라 많은 농업법인이 있는데, 2014년 현재 농업법인은 16,482개(영농조합법인 11,599, 농업회사법인 4,883)로 102,296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증가율이 10% 수준임.
 - 농기계 분야의 경우 최근 수출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고(2015년 수출 규모 9억 달러 수준), 4대 대규모 업체(대동, 국제, 동양, 엘에스) 외에 중소기업체 700~800여 개가 있으며 시장 규모는 2.7조 원대, 종사자 규모는 1.5만 명 정도임. 비료(무기질) 생산 분야의 경우 6대 대기업 외 30~40개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연간 6,000억 원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2천여 명 수준임. 농약 분야는 연간 1조 4,000억 시장으로 (주)팜한농, (주)농협케미컬 등 주요 회사 외에 100여 개 중소기업체에 2만여 명이 종사함.
 - 식품산업 분야의 경우 농산물가공(정곡, 제분 및 식료품), 축산가공(육류, 낙농품), 음료 제조업 등의 사업체가 2014년 현재 4,983개이고 시장 규모는 79.9조 원, 종사자 규모는 19.4만 명임.
 - 외식산업 분야는 제네시스 BBQ, 놀부 NBG, (주)동원홈푸드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로 하는 업체와 더불어 중소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2014년 기준 65만 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189.6만 명 규모이고, 시장 규모는 83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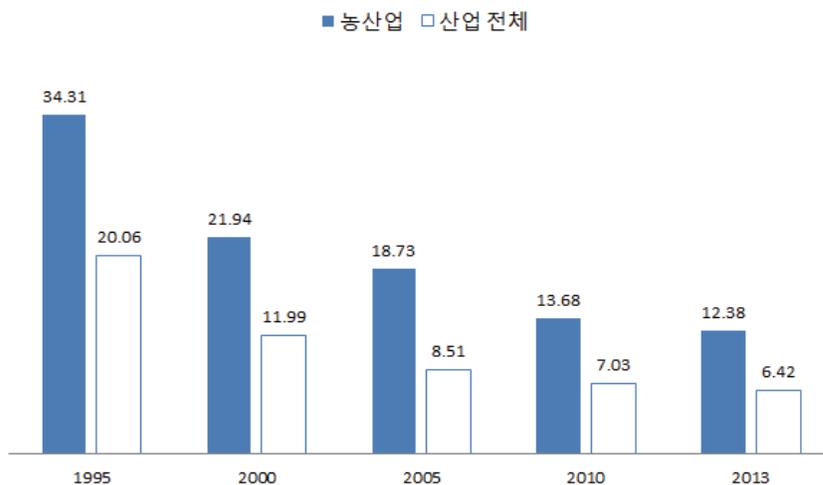
- 농관련 행정, 금융,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의 직간접 서비스 분야에 농업 공공기관, 농협, 학교, 연구소, 컨설팅업체 등에 약 19만 명이 종사함.

그림 1. 농산업 범위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할 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대비 8.9%)이고, 고용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6.4명)의 2배에 이룸<그림 2>.

그림 2. 전체 산업 및 농산업 분야 취업계수 변화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농업 생산 분야, 식품가공, 외식,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창출 여력이 많음

□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관련 업종 고용 창출

- 특히, 농촌지역에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는 눈에 띄게 증가함.
 -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유통·판매하거나,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지역에서는 관련 업종의 고용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유지·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의 특산품으로 많이 알려진 금산군 인삼, 고창군 복분자, 상주시 꽃감, 문경시의 오미자 등은 관련 업종에서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함. 또한 무안군 양파처럼 지역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을 이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관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함. 2006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가장 적게는 9.1%, 가장 높은 많게는 224.6% 고용이 상승함<표 1>.

표 1. 지역특화산업 관련 고용 변화: 2006~2014년

시군	특화 품목	산업 분류 명칭	종사자 수(명)		
			2006년 (A)	2014년 (B)	'06~'14 증감률(%)
제천시	약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41	245	73.8
증평군	인삼	인삼식품 제조업	81	161	98.8
금산군	인삼	인삼식품 제조업	572	1196	109.1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10	91	-56.7
고창군	복분자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62	178	187.1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98	128	30.6
		기타 발효주 제조업	70	94	34.3
순창군	고추장	장류 제조업	424	478	12.7
무안군	양파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43	254	77.6
영광군	굴비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412	1541	9.1
상주시	꽃감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24	727	224.6
영양군	고추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48	72	50.0
문경시	오미자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95	416	41.0

주 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세' 분류 기준, 기타 분류는 '세세' 분류 기준을 따랐음.
 2) 지역특화산업 지역과 품목은 김정섭 외(2016b)에서 참고함.
 3) 자료: 통계청(2006, 2014)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임진영(2017: 37) 재구성.

□ 향후 농업 생산 부문 종사자 수는 감소하겠지만, 관련 서비스, 식품가공, 외식, 유통 분야 등은 증가가 예상되고, 분야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함.

-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부문 성장률 및 취업계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을 토대로 하여 농산업 부문별 종사자 전망을 함.¹⁾

- 부문별로 2023년까지 연평균 종사자수 변화율을 보면 농림 생산 부문 -1.0%, 농림 투입재 부문은 -1.2%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농림 서비스 부문 0.3%, 농림식품가공 부문은 1.0%, 외식 부문은 0.4%, 농림 유통 부문은 1.2%로 증가가 예상됨<표 2>. 즉, 농림 서비스 부문은 6,000명, 농림식품가공 부문은 3.8만 명, 외식 부문은 6.3만 명, 농림 유통 부문은 5.1만 명 등 총 24만 명 정도가 더 종사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농산업 종사자 전망

단위: 천 명

산업 부문	2013	2018 (p)	2023 (p)	종사자 증감		연평균 변화(%)		
				'13~'18	'13~'23	'13~'18	'19~'23	'13~'23
농림 생산(A)	1,418	1,303	1,287	-116	-131	-1.7	-0.2	-1.0
농림 서비스(B)	187	190	194	3	6	0.3	0.4	0.3
농림 투입재(C)	40	36	35	-4	-4	-2.0	-0.3	-1.2
농림식품 가공(D)	357	375	396	17	38	1.0	1.1	1.0
외식(E)	1,549	1,580	1,612	31	63	0.4	0.4	0.4
농림 유통(F)	412	451	463	39	51	1.8	0.5	1.2
농산업 전체	3,963	3,934	3,987	-29	24	-0.1	0.3	0.1

자료: 마상진 외(2016).

- 농산업 종사자수 전망치와 2013년 시점 종사자의 연령²⁾을 고려하여 은퇴자 규모를 추정할 자료를 근거로 농산업 분야의 부족 인력 규모를 도출함. 그 결과 2023년 시점(2013년 기준)에 116만 명 정도였음<표 3>. 농림 생산 부문 61만 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000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표 3. 농산업분야 고용 창출 규모 추정(2013년 기준)

단위: 천 명

산업 부문	은퇴 예상 인력		필요 인력 규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농림 생산(A)	419	626	303	611
농림 서비스(B)	11	25	14	29
농림 투입재(C)	2	6	-1	5
농림식품 가공(D)	38	77	55	98
외식 (E)	129	304	160	336
농림 유통(F)	38	68	76	80
농산업 전체	636	1,106	607	1,159

주: 은퇴 예상인력은 종사자 은퇴연령을 65세(단 농림 생산 부문은 75세)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마상진 외(2016).

1) 한국은행(2016)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2013년 종사자 수에서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2013~2018년 및 2018~2023년 구간별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별 취업자 연령자료를 근거로 함.

농산업체, 교육기관, 지자체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농산업 고용 창출 사례들이 등장함

2.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우수 사례

-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보타리 영농조합법인)는 농업계 학생 및 귀농자에게 도제식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16농가가 농촌에 정착하도록 도와줌.
 -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 대표는 농고 교사 출신으로, 영농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학생 및 청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함(1999년부터 약 10만 명 정도, 연평균 5,000여 명 정도)
 - 영농교육을 받은 후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제식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내 고령농의 농장을 인수하도록 주선함. 이후 해당 농가와의 공동 생산을 통해 보타리 영농조합법인 전체의 생산을 규모화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목하여 전체 법인의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 현재까지 졸업생 16명이 제주 보타리 지역 인근에 정착함. 보타리 지역 12만 평에 금산 자연농원-JAS(유기농산물 채소 과수), 보타리영농팜(채소류 건조, 저염 양배추 김치 제조), 이건조(상온진공 건조시스템, 효소발효기계), 농부와 스승(귀농, 친환경인증 농가모임), 푸른제주영농조합(친환경채소류경매, 친환경학교급식), 보타리에너지(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업, 태양광연구소) 등을 창업하여, 각자 독립 운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은 구례군과 협력하여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고 관철은 일자리를 갖춰 현재까지 511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함.
 - 아이쿱 생협은 2011년 구례군과 MOU를 맺고 군 농공단지 터를 매입하여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기 시작함. 2014년 4월 오픈한 자연드림파크에는 현재 14개 생산법인이 17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음. 연간 매출액은 1,286억 원, 연간 9.7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음.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함.
 - 직원들 평균 연령은 38세로, 2014년 250명으로 시작해 3년만에 채용 인원이 92% 증가하였음.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모토로 하여 법정 최저임



금 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해주고, 보육(어린이집), 문화(영화관, 커피숍, 스포츠센터 구비), 주거(사원아파트),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도록 복지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전남자연과학고(구, 구례농고)와 연계하여 아이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강사파견, 현장실습지원,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실습생 전원채용 등의 산학연계 활동을 하고 있음.³⁾ 예전에는 전남자연과학고 졸업생이 지역 내에 취직 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진출하곤 했는데, 자연드림파크가 생긴 이후 여기에 매년 10여 명이 취업하고 있고 현재 30여 명이 일하고 있음.
- 아이쿱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상 성격으로 농산업 분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이쿱은 사원(신입, 경력) 교육을 위한 직업학교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진천농고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지역 식품·바이오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 취업률 90% 이상을 달성함.**

- 진천농고(1951년), 진천농공고등학교(1993년) 등을 거쳐 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2012년 식품과 제약 분야 바이오 명장 육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함. 학생들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고, 기숙사가 제공됨. 학교 교육을 통해 성취한 모든 활동·평가 내용이 진로 경로에 체계적으로 기록·인증됨. 또한 졸업 이후 3년 이상 근무시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됨. 그리고 취업 확정시 최대 4년간 입영 연기가 가능함.
- 마이스터고 전환 이후, 지난 4년간 제약 분야 28개 업체, 식품 분야 31개 업체 등 총 59개 업체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고, 졸업생 100명에 237명의 취업약정(중복약정 포함)을 체결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체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생산현장 견학, 인턴십,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등 현장교육이 실시되고, 협약기관 맞춤형 이수를 이수한 학생은 신입사원 채용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2015년 이후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 기록: 92.9%(2015) → 92.7%(2016) → 91.5%(2017)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성공 비결은 지역의 공단 또는 관련 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기로 약속한 뒤 학교가 이를 지키는 데 있음.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기업의 평가도 매우 호의적이어서, 웬만한 전문대생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음.

3) 아이쿱은 전남자연과학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와 농식품 생물소재산업 인력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식품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음. 이 사업은 전남 일자리정책실 주도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이뤄진 사업으로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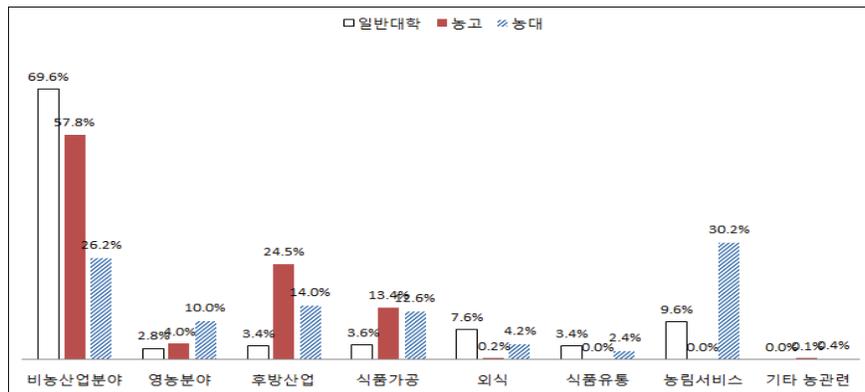
- 현장 중심의 도제식 창업 교육 및 창업 후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농업 생산 부문에서도 성공적으로 창업자들을 안착시킬 수 있음.
- 산업체가 입지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보수, 숙소, 각종 문화 여건 등의 근무조건을 높임으로써, 농촌에서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약정 등 적극적 산학협력을 함으로써 농업계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대될 수 있음.

청년들의 농산업 진출의향이 낮지 않고, 임금기대 수준도 현장과 괴리가 크지 않음

3. 청년들의 농산업 진출의 가능성과 요구

-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농업계 학생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5년 현재 농고 63개(한국농업교육협회 기준)임. 농업과, 원예과, 축산경영과, 자영과, 산림과학과 등 214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0,456명이 재학 중이고, 7,559명이 졸업함. 농대는 농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2015년 현재 30개이고, 29,228명이 재학 중이며, 6,195명이 졸업함.
 - 일반 대학생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351만 6,000명이 재학 중이고, 68만 5,000명 정도가 졸업함.
 - 농고의 협조를 받아 농고생 1,511명을 전문조사업체(아이알씨)에 위탁하여 농대생 500명, 일반대생 500명을 조사함.
- 농업계 학생, 일반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계획을 조사한 결과,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 대학생의 30.4%가 진출 의사가 있었음<그림 3>.
 - 농고생은 투입재산업(후방산업) 분야 진출 의향이 24.5%로 가장 높았고, 식품가공 분야(13.4%), 영농 분야(4.0%) 순이었음.
 - 농대생은 농산업 분야 중에 농림서비스 분야 진출 의향이 가장 많았고(30.2%), 후방(투입재)산업(14.0%), 식품가공(12.6%), 영농(10.0%), 외식(4.2%), 식품유통(2.4%) 등의 순이었음.
 - 일반 대학생은 농림서비스(9.6%), 외식(7.6%), 식품가공(3.6%), 식품유통(3.4%), 후방산업(3.4%)순이었으며, 영농(2.8%) 분야 진출 의향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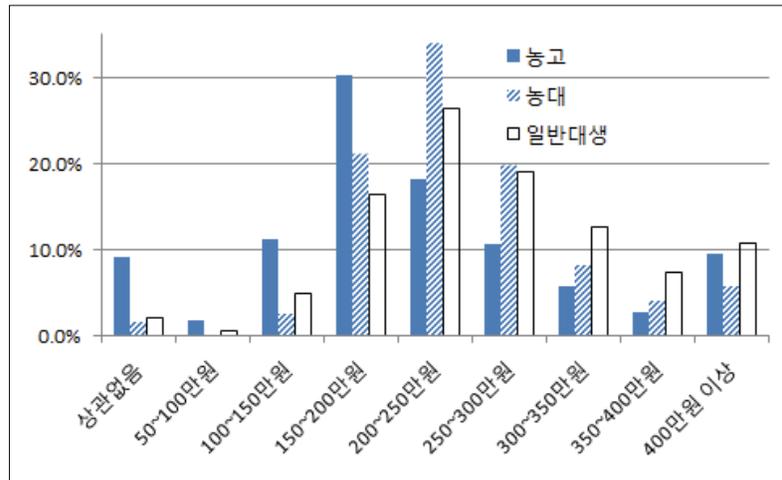
그림 3. 학생들의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



자료: 마상진 외(2016).

-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기대 수준은 농산업체 현장과 차이가 크지 않음.
 - 학생들이 취·창업 시 기대하는 월 소득 수준은 농고생은 150만~2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고, 농대생과 일반대생은 200만~25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음(그림 4). 이는 농산업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초임(고졸의 경우 167만 원, 대졸의 경우 190만 원)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임.

그림 4. 학생들의 취·창업 시 기대 월 소득



자료: 마상진 외(2016).

- 농산업 분야로의 취·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근무조건이나 사회적 인식보다는 관련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꼽고 있음(표 4).
 - 학교에서 산학연계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산업 현장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또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표 4. 농산업 취·창업 관련 장애요인

단위: %

구분	학생		
	농고	농대	일반대
일자리정보 부족	18.7	22.1	18.4
지식과 기술 부족	14.2	13.7	18.4
현장경험 부족	13.1	10.2	15.3
흥미나 자긍심 부족	10.9	14.1	18.4
사회 부정적 이미지	9.2	8.8	11.1
장래 불명확	8.2	15.5	18.4
근무조건 열악	8.3	8.6	0.0
기반 부족	6.7	5.8	0.0
부모, 지인의 반대	4.1	1.2	0.0

주: 백분율은 열(세로)별 응답자(복수응답) 기준임.
 자료: 마상진 외(2016).

- 농업계 학교 교원들은 농업계 학교를 통한 세부 부문별 신규 인력의 체계적 육성, 전문 인력 정보 알선 체계화, 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인력채용 경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표 5>.

표 5.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 관련 정책 요구

단위: %

구분	농고	농대	전체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26.0	58.1	44.4
지자체 역할 강화	26.0	38.0	32.9
대국민소양	34.4	22.5	27.6
부문별 신규 인력 육성	44.8	47.3	46.2
전문인력 정보 알선	42.7	48.1	45.8
산학협력	45.8	41.1	43.1
인력채용 경영지원	41.7	30.2	35.1
부문별 민간 협력체	15.6	18.6	17.3

주: 백분율은 열(세로)별 응답자(복수응답) 기준임.
 자료: 마상진 외(2016).

농업계 학교의 혁신을 통한 적극적 산학협력, 임금을 포함한 고용의 질 개선 노력 필요

4.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농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인력 수요, 인력 공급 그리고 정책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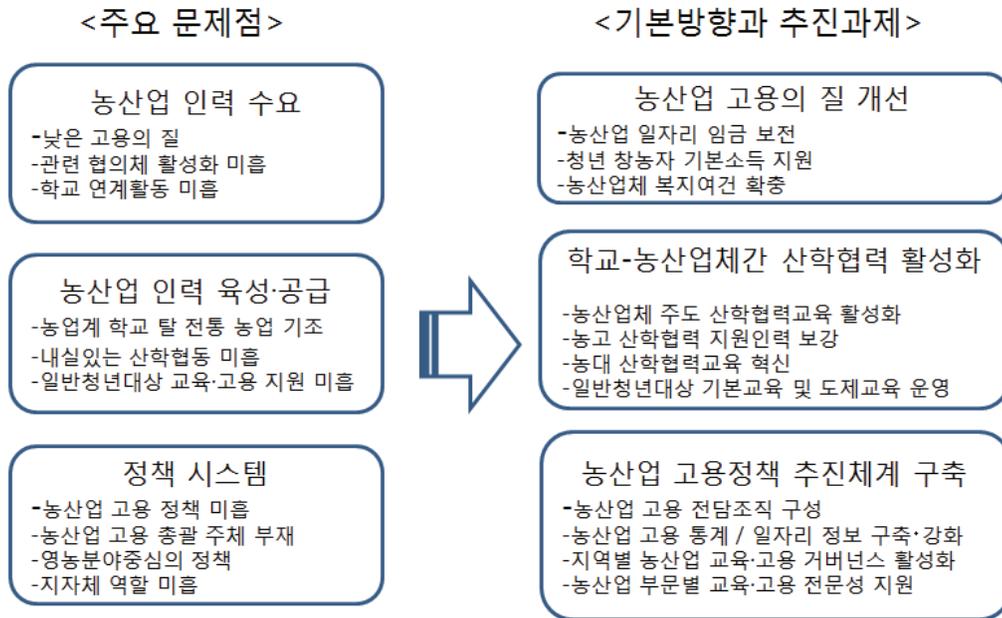
- 농산업 분야는 고용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청년 고용 창출이 쉽지 않음. 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일과 휴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전공과의 관련성이 낮고, 본인 학력보다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자기개발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제반 복지여건이 미흡함. 산업체들은 관련 학교와 산학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의 농산업 고용과 관련한 역할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산업 인력의 가장 중요한 배출처로 농업계 학교(농고 63개, 농대 30여 개에서 매년 13,000~14,000명의 학생들이 배출됨)가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계 학교는 전통적 농업이 위축되면서 전후방 농업 연관 분야로의 교육 확대가 두드러지고, 일부 비농업 분야(레저·관광 등)로도 전환되고 있음. 취·창업 관련 교육은 농고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범주를 벗어난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교육·진로 연계활동은 활발하지 못함. 농대의 취·창업 교육과 산학연계 활동은 매우 제한적임.
- 농산업 분야의 적절한 고용 시스템이 미흡한 편임. 농산업 정책은 대부분 세부 산업 부문별 인프라 투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인력 육성·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일부 고용 정책의 경우 영농 인력 분야가 주를 이루고 전후방 연관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업 고용 현안 총괄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 일자리 현안이 부각될 때만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불분명하며 관련 사업의 관리가 지속적이지 않음.



□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농산업 고용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어느 산업보다도 비중이 높음. 농산업 고용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농산업 분야에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음. 농산업 현장의 우수 사례들은 농산업체, 농산업 교육현장, 농촌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 활동을 통해 농산업 분야도 충분히 성공적인 창업자, 취업자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나 농정 당국의 관련 정책은 아직 미흡하였음. 현재의 청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그림 5. 농산업 고용 관련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일정 부문 임금을 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농산업 일자리의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영농분야 경영체에만 적용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사업’과 같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농산업 분야 전반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의 매칭을 통해 도시 또는 타 산업분야와 차이가 나는 임금, 주거·교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심각하게 고령화된 농가 구조개선을 위해 영농 분야 창업 청년에게 창업 후 일정 기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2016년 추진하다 중단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확대 추진).

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세부 산업별 민간주체의 육성이 필요

- 문화, 복지, 보육 등의 여건은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기구나 세부 산업별 협회가 개별 업체의 요구를 모아 지역 또는 업종 단위로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함. 지역별·산업별 지원기구를 통해 해당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표 6>.

표 6. 세부 농산업 부문별 주요 협회(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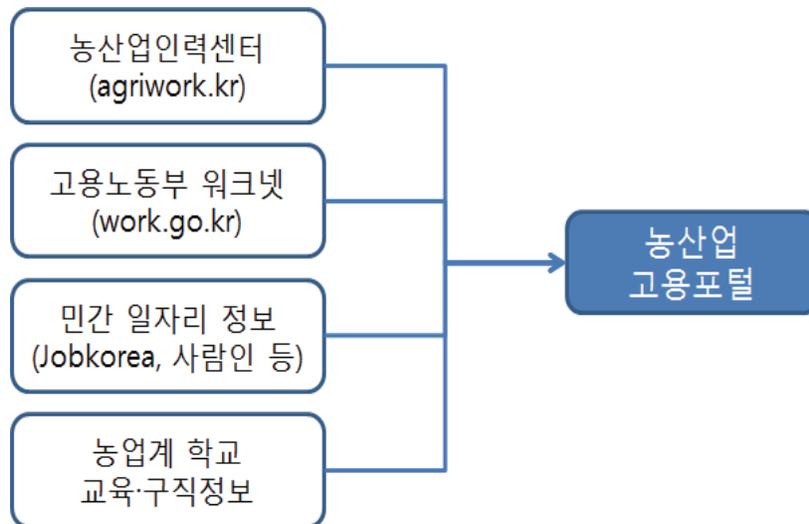
산업 부문	단체명	
농림 생산	농업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조경	한국실내조경협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조경사회
	곤충	한국곤충산업협회
	산림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농기계, 농자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업시설협회, 한국농자재산업협회	
농약, 비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종자, 종축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농림 서비스	국민농업포럼	
농림 유통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수식품무역협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한국농수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농식품유통인포럼	
외식	한국외식산업협회	

-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간 과정에 대한 정책의 정교화가 필요함.
 - 농업계 학교는 농산업체와 긴밀한 협약·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학생들이 학교에서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론적 내용을 교육 받고, 인턴 형태로 산업체에 근무하며 도제식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교 단계 직업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해 광역 단위로 하나씩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농산업 분야 전담 인력을 배치시키고, 농업계고에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취업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해야 함.
 - 이론 중심 농대교육의 일대 혁신을 위해 농정 당국은 교육부와 연계하여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사)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산업포럼 등 범농산업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학교육혁신추진위원회(안)’를 구성해야 함. 이를 통해 농산업기반 교육이 강화되도록 해야 함.
 - 농산업을 전공하지 않지만 농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들에게, 농산업 진로와 관련한 기본교육 패키지를 제공해야 함. 또한 요즘 늘어나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 귀농자들이 농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현직

근로자 재교육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도제훈련을 실시하여, 이후에 관련 업체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농촌정책과, 농촌산업과, 경영인력과, 농기자재정책팀,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축산팀, 식품산업정책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인력 관련 업무를 ‘(가칭)농산업인력과’에서 담당하도록 함.
 -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영농 이외 농림 서비스, 투입재, 식품가공, 외식, 농림 유통 등 세부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관련 통계가 생산되도록 ‘농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하고, 농산업 고용통계를 생산해야 함. 또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통합 정보 플랫폼을 설치·운영해야 함(그림 6).
 - 세부 농산업 부문별 주요 협회들의 교육·고용 전문성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농산업 관련 주체들 간의 고용 관련 민관 협의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

그림 6. 농산업 고용 포털(안)





2017년

-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정인)
-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KREI 농정포커스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6. 1.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9-11-6149-031-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